스님 위한 사찰음식 정규강좌 門 열다

불교문화사업단, 향적세계 종로 이전 후 첫 성과

12주 과정 초급반 강의 시작
향후 중·고급반 운영 계획도
전문조리사 시험 자격 부여
"사찰음식 대중화 이끌 인재"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스님대상 정규강좌를 수강 중인 스님들이 사찰음식 실습에 여념이 없다.

사찰음식 전문교육관인 향적세계가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종로로 이전된 가운데, 스님들을 위한 정규강좌가 마련돼 사찰음식 대중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5월 17일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2층 향적세계에서 '스님대상 정규강좌' 첫 문을 열고, 향후 운영계획 등을 밝혔다.

스님대상 정규강좌는 지난 6년간 향적세계에서 정규강좌를 통해 1100여 명의 수강생과 전문조리사를 배출했지만 스님을 위한 교육이 없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특히 각 사찰 템플스테이 만족도 향상과 포교 일환으로 신청자가 몰렸다.

사업단에 따르면 기존에는 1개의 강좌만 운영하려 했으나 스님들의 신청이 늘어나 2개 반으로 확대 편성했다.

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와 어느 정도 승랍이 되는 스님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아무리 잘 짜여 있어도 먹는 것이 부족하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목소리에 변화를 모색하는 일선 사찰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며 "또한 사찰음식이 대중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포교일환으로 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도 있다. 시간이 흐르면 이 스님들이 사찰음식 대중화를 이끌고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대상 정규강좌 초급과정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12주간 이어진다. 현재 A반과 B반 총 46명의 스님들이 수강신청 했으며, 중급과 고급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A반은 홍승 스님, B반은 동원 스님이 강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고급과정 수료 시에는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원경 스님은 "1990년대 얼마 되지 않던 불교대학은 낯선 곳이었지만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교육기관이 됐다"면서 "스님들의 사찰음식 교육도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 나중에는 어느 곳에서든 익히고 가르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적세계는 2011년 4월 목동 국제선센터 지하 1층에 개관한 사찰음식 교육관이다. 초·중·고급 단계별 과정을 구축해 사찰음식 전문인력을 양성해왔으나 실습공간의 부적절성과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해 최근 종로로 이전했다. 사업단에 따르면 기존 향적세계는 환기가 어렵고, 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불편함이 제기됐다.

새로 종로에 문을 연 향적세계는 총 103평 규모로 제1교육장과 제2교육장으로 구성됐다. 1교육장은 수강생을 동시에 24명 수용가능하며, 강사 조리대 위에 거울을 달아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꾸몄다. 2교육장은 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조리교육 공간으로, 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로 마련했다.

원경 스님은 "사찰음식 세계화를 위해 해외 각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행사를 열지만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곤 한다. 결국 같은 스님을 계속 모실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교육관 확대와 커리큘럼 체계화 등에 더 힘을 쏟는다면 사찰음식의 질적·양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적세계가 목동에서 종로로 이전했지만 목동 시설은 국제선센터에서 사찰음식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행 스님 원력, 모두 더불어 이루어 가길"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6주기 추모 다례재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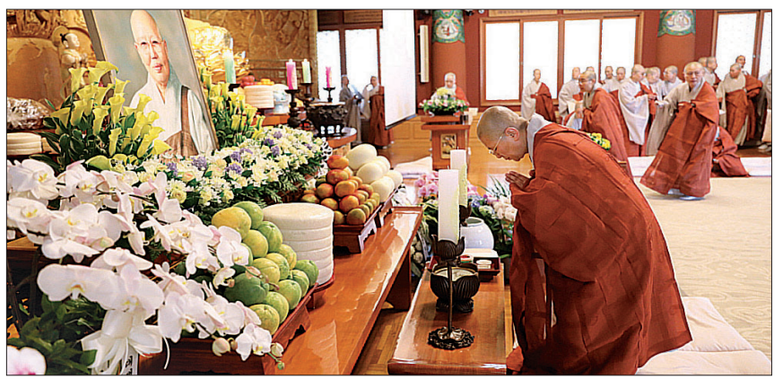
한마음선원 창건주인 대행 스님의 구제중생 원력과 교육·포교 일신에 공헌한 뜻을 기리는 추모법석이 열렸다.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재단이사장 혜수)은 5월 15일 안양 본원에서 묘공당 대행 스님 6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본원을 비롯해 부산·대구·광주·태국 등 국내외 지원에서 온 3000여 대중이 참석해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지혜와 자비를 갖춘 불제자로서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수행 정진을 더욱 열심히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이 음원으로 봉정돼 의미를 더했다. 녹음은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맡았으며,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과 선원 주지 혜솔 스님이 부처님전에 봉정했다. 한마음선원은 지난해 대행 스님 5주기 추모다례재에서 '뜻으로 푼 금강경'을 봉정한 바 있다.

다례재는 예불에 이어 헌화·헌향·헌다, 조사영반, 추모 영상 상영, 음성 공양, 금강경 독송 등으로 진행됐다. 추모영상에서는 "한 가정에서 가장이 중심을 잡고 마음공부를 해야 그 가정이 바로 선다"며 대행 스님이 1990년 창립한 한마음선원 거사신행단체인 '법형제회'의 28년 발자취와 함께 아버지가 마음 공부를 함으로써 가족뿐 아니라 사회와 나라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스님의 거사포교에 담긴 속뜻를 담았다.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봄에는 많은 꽃이 피고, 사람들은 그 꽃을 보고 마음의 꽃을 피운다. 꽃을 보면서 괴로워하거나 걱정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렇다면 그 꽃은 부처님과 같다"며 "대행 스님께서는 인내의 결과로 얻은 밝은 아름다움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다.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마음을 새겨 꽃과 같은 향기를 이웃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그로써 모두가 아름답게 미소 지을 때 이 땅이 바로 정토세계가 된다"고 당부했다.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이 묘공당 대행 스님 영전에 헌향한 뒤 합장배례를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대중은 이어 스승의 날을 맞아 대행 스님을 기리는 스승의 은혜를 합창했다.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은 대행 큰스님 제자로서 모자람이 없게 큰스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감으로써 남에게도 이익을 주는 불제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봉정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외 한마음선원 한글 예불 의식문 음원들은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안양=윤호섭 기자


조계종과 봉은사가 미국 경매를 통해 환수한 '봉은사 시왕도(奉恩寺 十王圖)'의 모습. 환수된 봉은사 시왕도는 4폭 중 1점으로 제2·4대왕이 함께 그려져 있다. 이 같이 시왕들이 함께 배치된 구도는 한국에서는 화엄사 시왕도에서만 나타나는 독창적 구도다.

봉은사 시왕, 반세기만에 제모습 찾다

美경매통해 시왕도 환수… 독창적 구도 도상 '눈길'

그간 행방이 묘연했던 봉은사의 시왕도가 종단과 해당 사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긴밀한 협조로 반세기만에 제자리에 돌아왔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5월 16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봉은사 시왕도(奉恩寺 十王圖)' 환수공개식을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봉은사 시왕도는 18세기 조성된 4폭 중 1면으로 크기는 117.2×117.2cm이며, 화기와 장황은 절취됐다.

'봉은사 시왕도' 환수는 종단과 사찰, 정부기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신속하게 이뤄졌다. 지난 4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경매시장 모니터링 중 미국 경매시장에 '시왕도' 1점을 발견했고, 이를 조계종에 알렸다. 조계종은 곧바로 동시기 추정 시왕도를 이를 통해 해당불화가 18세기에 조성된 〈봉은사 시왕도〉 4폭 중 1폭임이 확인했다. 나머지 3폭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동국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이에 봉은사와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해당 성보의 정밀 조사 및 환수를 위한 환수추진단을 구성해 현지에 파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봉은사 시왕도'는 지난 4월 24일에 미국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낙찰 받았으며, 원래의 봉안처인 봉은사로 돌아왔다.

이번에 환수된 '봉은사 시왕도'는 문화재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불화는 화풍 상 18세기 후반 서울·경기지역에서 활동했던 화승 인종(印宗), 영인(永印), 도준(道俊) 등의 불화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환수된 시왕도는 본래 봉안처인 봉은사로 돌아갔으며, 봉은사는 이를 기념해 16일 오후 2시 환수고불식을 봉행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상담개발원·한국자살예방협회 손잡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불교상담개발원과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자살 사고 방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과 한국자살예방협회(협회장 오강섭)는 5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OECD 자살률 1위란 오명을 안고 있다. 올해부터 정부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양기관 협약이 이뤄지게 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와 교육 및 사회 활동 증진 등을 목적으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진행되는 사업은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교류 △공동 사업 확산을 위한 언론 및 대외 홍보 △자살예방활동을 위한 기술 및 정보 교류 △기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등이다. 노덕현 기자

